

러브스토리 파고든 공포와 전율



리시 이야기 스티븐 킹 지음, 김시현 옮김 황금가지, 1권 384쪽, 2권 392쪽 각 권 8500원



넥스트 마이클 크라이튼 지음, 이원경 옮김 김영사, 517쪽



유전자 세상에 대한

불온한 상상

작가의 이름만 보고 읽기 시작했다면 처음 한두 시간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다. "스티븐 킹 답지 않다"고 불평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킹은 역시 킹이다. 호러의 대가가

사랑과 구원을 다루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는 걸 독자의 뇌리에 강렬하게 심어준다. 작 년 말 출간 직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지금 껏 쓴 소설 중 최고"라고 말했을 정도다. 킹은 특유의 솜씨로 애절한 러브 스토리

에 공포와 전율을 꽉꽉 쟁여 놓는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환상과 현실이 어우러지는 특유의 스토리 전개는 그의 팬들에겐 큰 즐 거움이다. 이 작품이 그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스티븐 킹 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인공 리시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콧의 아내다. 미치광이 팬이 쏜 한국산 권총에 남 편을 잃는다. 그 후 2년이 넘어 리시는 스콧 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부드러운 러브 스토리로 이어진다.

그러나 스콧의 유고집을 노리는 광적인 팬 이 접근하면서 이야기는 팬터지 호러로 치 닫는다. 홀로 위험에 처한 리시는 남편이 마 치 예견이라도 했듯이 남겨 놓은 실마리들 을 발견한다. 이를 따라 다다른 곳이 부야문

(booyamoon)이라는 환상 세계다. 스콧에겐 창작의 원천이자 공포의 근원이었던 곳이다. 여기에서 리시는 스콧이 평생 비밀로 해왔던 진실과 마주치고 만다. 킹이 자신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선혈이 낭자하던 그의 전작들과 비교하면 등장인물들의 출혈이 상당히 절제된 편이다. 엽기적인 폭행 장면이 군데군데 나오긴 하지 만 질릴 정도는 아니다. 다만 분량이 방대하 다 보니 군데군데 곁가지가 눈에 띤다. 또 미 국 문화와의 거리감 탓인지 이해하기 어려 운 부분도 있다. 예컨대 리시가 스콧의 유고 를 강탈하려는 미치광이에게 심하게 얻어맞 은 뒤 엉뚱하게 1950년 대 육체파 여배우 자 자 가보(번역은 '차 차 가보'로 돼있다)의 흉 내를 내는 장면이 그렇다. 하지만 밤에 불을 끄고 나서 컴컴한 서재에 뭔가 있는 것 같은 찜찜한 느낌을 받는다면 제대로 읽은 셈이다.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은가.

원작에는 미국인도 헷갈릴 만큼 수많은 조 어와 방언이 춤을 춘다고 한다. 번역에 꽤나 속을 썩였을 듯싶다. 번역자의 수고와는 별 도로 원작의 분위기가 얼마나 충실히 전달됐 는지 걱정스럽다.

> 남윤호 기자 yhnam@joongang.co.kr

세상은 요지경이다. 인도네시아 섬에 사

는 오랑우탄은 말을 하고, 어느 집 앵무새는 수다쟁이를 넘어 척척 산수를 한다. 인간 같 기도, 침팬지 같기도 한 외모로 아예 사람을 엄마로 여기는 동물도 생겨난다. 다음 세상 은 그렇게 놀랄 일들뿐이다. 지금의 무분별 한 유전자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다.앞 서 예가 과장됐다 치자.

그러나 '유전자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현 실과 맞닿아있다. 대학생 때 정자를 판 의대 생은 20년이 지나 'DNA상 딸'이라고 찾아 온 여성의 생계비 청구에 맞서 소송을 벌여 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양육권을 뺏어야 하 는 남자는 아내의 DNA 검사를 시도한다. 그녀에게 숨겨진 정신질환을 찾기 위해서다. 또한 DNA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파렴치범 에게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다. 법정 에서 '모험추구경향 유전자'가 있기에 저지 른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 을 게다. 죄는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새

더 무시무시한 일은 우리 누구나 본인의 유전자 소유권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믿 기지 않겠지만 신약 치료에 도움이 될 DNA 를 가졌다면 기업은 몰래 '특허권'을 따내 그 권리를 주장할 지도 모른다. 모두 그럴듯

한 일이다.

이 책은 '쥬라기 공원' 등 과학팩션으로 이름난 작가가 2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번역서로는 4년 만에 새로 선보이는 것이 다.) 놀라운 기술발달에 숨은 불길한 그림 자를 짚어낸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지 를 담았다. 공룡의 부활 같은 환상을 주기보 다는 훨씬 현실적인 '재앙 보고서'이자 끝간 데 없이 발전하는 기술문명에 대한 '경고문' 으로 읽힌다. 유전자 요법으로 500여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주장 속에 감춰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 작가는 사건의 개연성을 살리 는 데 비중을 두려는 목적에서 유전공학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곳곳에 실어 놓았다. 중 간중간엔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이 '세 기의 스캔들'로 설명되고, 과학자들끼리 유 전자 연구의 제재가 허술한 곳으로 중국·한 국을 꼽는 부분도 나온다.

작가 주장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며 정색하고 반박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생 소한 생명공학 분야를 쉽게 풀어 문제의식 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이 책의 미덕은 충분 하다. 소설은 소설대로 재미를 즐기면 되고, 미래의 선택은 독자의 몫이니까.

dangdol@joongang.co.kr

"역사 의미 증언하는 사진의 힘에 매료"

북 & 피플 📭

'눈빛' 이규상 대표

"덜 유명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거나 원로들의 의미 있는 작품을 정리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 여기죠."

국내 유일의 사진전문 출판사 눈빛의 이규상(47) 대표는 사진에 미친 사람이다. 400대에 달하는 카메라, 수 천 점의 작품사 진을 보유하기도 했지만 제작비가 비싸면 서도 별로 팔리지도 않는 사진관련 책 출 판에 18년 간 매달렸다. 이번 주에도 한국 사진사의 거장들의 작품세계를 정리한 『 한국사진연구』(박평종 지음), 사진에세이 집 『사색기행』(김인자 지음)을 냈다.

"사진은 어제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 매 체라 할 수 있죠" 그가 사진에 빠진 이유를 묻자 원론적 대답이 돌아왔다. 서울예대 문 예창작과를 나온 그가 본격적으로 사진에 눈을 뜬 것은 1985년 열화당 출판사 입사 이 후, 사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진의 '힘' 에 눈길이 갔다. 그리고 3년 뒤 퇴사해서는 곧 출판사를 차렸다.

"대체로 사진은 소비적 매체로 인식됐 죠. 광고에 쓰이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 여주는 것 말고, 생산적 매체로서의 사진 의 위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창업 초기엔 자기를 '꼬득인' 인물 중의 한 명인 영화감독 여균동이 편집주간을 맡 았다는 비화도 들려줬다. 출발점이 그랬 으니 당연히 '멋진 사진'보다 '뜻 깊은 사진' 위주로 출판했다. 그간 300여 종의 책을 냈는데 "역사의 의미를 증언하거나 현실 의 이면을 파헤친 사진집"이 많다. 한국전 쟁 당시 사진을 모아 엮은 『지울 수 없는 이미지』시리즈나 원로작가 최민식의 50년

작업을 정리한 『HUMAN』이 대표적이다. 하나같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자아내 는 작품들이다. 사진집 자체가 많은 애호 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간 베스트셀러 하나 만들지 못 한 것도 그 때문이지 싶다. 무슨 생각으로 출판을 계속할까.

"제가 하는 일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내 세울 생각도 없지만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않습니다. 이전엔 진정을 몰라주는 독자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마흔을 넘기 면서 '좋아하는 책을 계속 낼 수만 있으면 족하다'고 마음 먹으니 편안해지데요."

여순반란사건을 기록한 『격동기의 현 장』, 산업화·도시화의 이면을 드러낸 『골 목 안 풍경』 같은 책은 눈빛 아니면 낼 수 없는 책이란 자부심도 작용했단다. 그리 고 이런 책을 꾸준히 찾아주는 독자들이 있어 힘을 얻는다고 했다.

한국적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게 꿈이라는 이 대 표의 눈빛이, 출판사 이름에 담긴 뜻처럼 '세상을 포용하는 눈빛'으로 비쳤다.

김성희 기자 jaejae@joongang.co.kr



Briefing

◈인문·예술 출 판의 세계적 명가 인 이탈리아 준티 출판사의 'Vita d' artista'시리즈 한 국어판인 마로니 에북스의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시리즈 중 3, 4권이 나왔다. 『반 고흐-고독 속에 피워낸 노란 해바라기』(엔리카 크리스피노 지음, 정지윤 옮김, 128쪽, 1만5000 원), 『모네-빛으로 그린 찰나의 세 상』(피오렐라 니코시아 지음, 조재 룡 옮김, 128쪽, 1만5000원) 모두 거 장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다양한 도

판과 함께 보여준다.

러시아혁명 투사 트로츠키의 생애를 다룬 3부작 『무장한 예언자 트로츠키 』『비무장의 예언자 트로츠키』『추빙 된 예언자 트로츠키』(아이작 도이처 지음, 김종철 외 지음, 필맥, 696~796 쪽, 각 권 2만원)가 완간됐다. 트로츠 키의 삶을 세 시기로 나눠 조명한 이 전기는 전기문학의 고전이자 20세기 혁명사 연구의 필수자료로 꼽힌다.

 지도・일정표・답사기 등을 넣어 세계 각국의 이름난 트레킹 코스를 자상하게 안내한 트레킹정보 백과사 전 『트레킹, 세계의 산을 걷는다』(채 경석 지음, 휴먼앤북스, 448쪽, 3만 5000원)이 출간됐다. 지은이는 트레 킹과 오지문화여행을 전담하는 '한 ♦스탈린에게 맞섰다가 비명에 간 진티앤씨'의 본부장이다.

중앙일보 문화광고

중앙일보 문화정보는 연극, 드라마, 뮤지컬, 오베라, 본서트, 플래식, 국악, 무용, 권시등의 모든 문화정보를 한눈에 보십 수 있습니다.

광고안내 02-754-5033 Email wonad02@naver.com



퓨전국악 삼청각 차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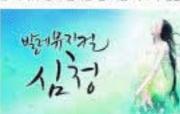
공면일자 : 3월 1일 ~ Open Run 공연장소 : 삼청각 '며(藝)푸리' 극장 의: 02)765-3700

1318 청소년 뮤지컬 'You are special, 오! 해피대디



공연일자 : 6월 22일 ~ Open Run : 대학로 세우아트센터 의: 02)765-8895

발레뮤지컬 발레뮤지컬 심청 온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올 여름 최고의 선물!



공연일자: 8월 16일 ~ 8월 26일 : 무디버설이도센터 (구.리홈엔헬스회관) = 02)2204-1041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말러 천인교향곡



공연일자 : 8월 23일(목) 오후8시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의 : 0216303-1919



공면일자 : 7월 4일 ~ 9월 2일 공연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의: 02)745-2124

세계인이사랑하는오테라(카르펜),(라트라비아타)!

2007 인천 세계오페라페스타벌

8월31일~9월2일(카르덴) 9월7일~9월9일[라 트라비아타] 공연장소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02)3476-6224

천시장소 :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의 : 02)581-4266

~ 9월 16일

후크선장과 띠보



공연일자: 7월 20일 ~ 8월 26일 공연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의: 02)501-7888

도쿄 스카파라다이스 오케스트라 갱스터 no.1



공연일자: 8월 5일(일) 오후7시 공연장소 : 열론 약스룹 의: 02)6080-5643

이도은 기자



공연일차 공연장소 : 확전그린 소극장 의: 02)763-8233

원분



공연일자 : 8월 8일 ~ 9월 30일 공연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의: 02)745-2124

록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드라마틱 댄스뮤지컬 (오디션) 지원까지 본 댄스큐지원은 및이리!! 2007년 여름을 광타할 최고의 공연!!



공연일자: 6월 26일 ~ 8월 19일 공연장소 :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 1관 의 : 02)744-7304

사건발생일구팔공

대학로에 사건이 발생했다!!



마리아 마리아



공면일자: 8월 23일 ~ 8월 26일 공연장소 : 충무아트올 대극장 9 1 1644-4484

면인들이 북야할 연극 1위 오아시스 세탁소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14 Milyapa

공연일자 : 성시공연 중 공연장소 : 오아시스세탁소극장

의 : 02)3673-0888 N서울타워정크아트 특별체험展

배화 (Funes)한 주세리에 많은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인의 다란 출신한 마이디어를 볼 수 있다는 집에서 본 건시는 피디를 가장하다



공연일자: 7월 20일~ 8월 19일

의: 02)762-0810

공연장소 : Showlic Theater 2편

Funny Funny VI 展

전시일자: 7월 5일 ~ 8월 22일 전시장소 : 갤러리 세출 의: 02)391-9171



천시일자: 6월 2일 ~ 8월 31일 전시장소 : N서울타워 지하 1층 미빌리온A관 의 : 02)3444-9750

스누피 라이프 디자인展 국제현대사진전 Flash Cube



전시장소: 삼성미술관 Leeum 의 : 02)2014-6901

中國국보展 39개 박물관에서 온 蓬



전시장소: 서울역사박물관 4:02)736-9697